

# 고흥군, 다채로운 우주 체험 프로그램 선보인다

### 5월3일부터 고흥우주항공축제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등 모집 인원 전년비 2배가량 늘려 동아사이언스 협업 콘텐츠 선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15회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오는 5월3일부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고흥군은 1년 중 단 한 번,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인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을 비롯한 4종의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접수를 고흥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은 오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3480명이 늘어난

7680명으로 정했다.

온라인 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과 축제 기간 방문한 관광객들도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전체 인원의 30%에 대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군은 발사장 견학과 함께 '고흥 우주여행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고흥 우주여행 전국 상상 그리기 대회'의 사전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5월 2일까지 우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흥의 특산물을 활용한 우주식량 개발과 축제 프로그램 및 포토존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흥 우주여행 전국 상상 그리기 대회'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전접수 후 축제 기간인 5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흥우주항공축제장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자유주제로 개최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등 4개 부문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는 야간프

로그램 '별자리 천체관측'도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1일 100명 한정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모집하고, 역시 5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첫 야간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강사로부터 별자리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우주과학관 잔디밭 광장에서 천체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도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전국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는 과학전문매체 어린이과학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사이언스'와 전략적 협업을 추진한다.

고흥군과 동아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어린이 우주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나로우주센터와 누리호 발사, 고흥의 과학체험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맵 기반의 체험형 브로셔 제작을 비롯해 우주과학 만화, 스탬프 투어 콘텐츠 등 다채로운 콘텐츠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

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어린이과학동아 5월호를 무료로 제공하고(500권), 우주항공축제장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d라이브러리 1개월 무료 체험권(5900원 상당)을 전원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타지역 과학 행사와의 콘텐츠 연계 및 유통을 모색, 과학문화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장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우주항공과 과학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고흥군만의 특색있는 인류 최초 우주촌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순천시, 청년 행정인턴 40명 모집 실무 경험 제공·취업 지원 병행

순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순천 청년 행정인턴'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순천 청년 행정인턴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실과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1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18~45세)이다. 다만 현재 취업 중인 자 및 최근 5년 내 행정인턴 참여자는 제외된다.

행정인턴 기간 동안 면접이나 시험 등의 취업 활동 시 특별휴가를 한 달에 1일 제공하며, 취업 관련 교육도 병행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시정소식의 인사채용을 참고하거나, 순천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061-749-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블랙이글스' 상공 가른다 5월2일 보성다향대축제

보성군은 오는 5월2일 오전 10시30분 보성공설운동장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에어쇼가 펼쳐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에어쇼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로, 남도의 하늘과 대지를 가르는 장엄한 비행이 전국 관광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1967년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특수비행팀으로, 국가 주요 행사 및 국제 에어쇼에서 탁월한 팀워크와 고난도 퍼포먼스로 찬사를 받아왔다. '2023 호주 애벌론 국제 에어쇼'에서는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개막식에서도 한 치의 오차 없는 웅장한 비행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상군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보성세계제약엑스포 당시 블랙이글스 에어쇼 이상의 확장된 연출과 화려한 곡예비행을 준비 중이다"며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블랙이글스 에어쇼'로 시작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국내 최고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보성다향대축제의 개막을 함께 해주게 돼 매우 뜻깊다"며 "공연 준비에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다향대축제'는 오는 5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한국자문화공원과 보성군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올해 다향축제와 함께 보성군민의 날, 데일리 콘서트,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보성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남도함창경연페스티벌 등 통합 축제를 마련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성=양종수 기자

###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광양시-광양지역건축사협회

광양시가 광양지역건축사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와 협회는 12개 읍면동을 상·하반기 각 1회씩 모두 24차례에 걸쳐 방문할 방침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상담 내용에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건축물 조치 및 양성과 절차 등이 포함된다.

상담 서비스는 매월 이장 회의가 있는 날 운영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정해진 날짜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구체적인 상담일시를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원도심 잇는 동천 수변공원 조성

순천시는 6일, 순천만-국가정원-원도심을 연결하는 명품 생태축 연결을 완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상상력을 발휘한 아이디어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제공한 결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합에서 36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동천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당초 풍덕조합은 2028년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수변공원을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요청에 따라 공원 조성을 3년 앞당겨 올해 4월 뿔꽃 개화 시기에 맞춰 개방하게 됐다.

오천그린광장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그린아일랜드를 연속하게하는 770m의 넓은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동천의 아름다운 수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기존의 뚝방 뿔꽃길과 연결된 아팝나무 산책로와 잔디밭이 조성됐다.

시민들은 넓은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편안히 쉬며 익숙한 동천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3일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의료진이 지역 주민들에게 돋보기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농촌 왕진버스' 의료 사각지대 달린다

고흥군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 3일 녹동농협에서 원광대학교 장흥 통합의료병원과 협력해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농작업 질환 치료, 한방진료, 검안 검사, 돋보기 처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15일에는 고흥농협이 고흥군민회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을 거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풍양농협 등 5개 지역농협에서도 농번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의료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협·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장흥군, 월 임대료 1만원... '전남형 만원주택' 선정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장흥군은 전남도의 핵심 인구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사업비 174억원 가운데 도비

150억, 군비 24억을 투입해 장흥읍 건산리 7번지 일원에 54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 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대는 60㎡형 29세대, 85㎡형 25세대로 구성되며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부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 균형, 도서관, 병원, 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광주·순천·목포 등 광역도시와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센터, 힐링텃밭, 어린이놀이터, 돌봄공간 등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입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선정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 주거복지의 시작"이라며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정주 매력 넘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